

‘목포대교→땅끝’ 해남군 국도 1호선 기점 변경 추진

해남군이 국도1호선 기점을 땅끝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

국도1호선은 전남 목포시에서 판문점을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까지를 잇는 대한민국의 중심 종축 국도로, 현재 기점은 목포 신의항에 위치한 목포대교이다.

국도1호선 기점은 1911년 개통 당시 목포 유달산 아래 과거 일본 영사관 앞 위치에서 2012년 목포대교가 개통되면서 목포대교 종점인 총무동 고하도로 시작점이 변경된 바 있다.

군은 국도1호선의 기점을 땅끝까지 연장함으로써 한반도의 시작인 땅끝해남에 대한 상징성을 극대화하

고, 국토 균형발전의 의의를 드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점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 중으로, 올해 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 기점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해남군의 국도1호선 기점 변경 추진은 해남을 잇는 고속도로, 철도 등 대규모 SOC사업이 속도를 높이면서 이에 발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광주~해남~완도간 고속도로는 지난달 13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약속받으며 사업추진에

한반도 시작 상징성 극대화
국토 균형발전 시너지 효과

광주~해남~완도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사업 연계 ‘속도’
연대 타당성 조사 용역 매듭

날개를 달게 됐다. 광주에서 강진 구간은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73%에 이르고 있다. 강진~해남~완도 구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성 평가가 진행 중으로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경 착공할 예정이다

보성~해남~임성을 연결하는 경전선은 2025년도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올 10월경 시운전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후 7월경이면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남군 계곡면에 들어설 철도역사 공사 또한 시운전 기간인 10월경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전기시설을 포함한 건축공사가 완료된 상황으로 해남에 철도가 지나가는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이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TX해남노선 연결도

운곽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해로 군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전라남도를 수시로 방문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은 지리적인 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만으로 대형 국책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에 차질을 빚었을 뿐 아니라, 기업 및 관광객 유치에도 큰 제동이 걸려왔다”며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해성기자



지난 24일 전남교육청 체육교육센터에서 사회과·윤리과·역사과 교사를 대상으로 ‘전남 의(義) 교육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민주·인권·평화 결집 전남 ‘의(義) 교육 활성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4일 전남교육청체육교육센터에서 각 학교 사회과·윤리과·역사과 교사를 대상으로 ‘전남 의(義) 교육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김남철 전남 역사연구소 운영위원장을 초청해 ‘전남 의(義) 교육의 내용과 방향 - 남도의병을 중심으로’란 주제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전남 의(義)교육에 대한 이해와 학교 교육의 방향성이 논의됐다. 이어, 각 학교급별 전남 의(義) 교육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에는 ▲노안남초등학교 신봉석 교사의 ‘체험중심 의(義)교육’ ▲해남고등학교 박성언 교사의 ‘동아리 활동 중심 의(義)교육’ ▲전남의국어고등학교 김철민 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의병서술 분석’ 등 주제별 우수 사례를 나눴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교사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분연히 일어섰던 전남의 의로운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교육을 바탕으로, 각 학교에 맞는 역사 수업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해성기자

“호남인의 타고난 기백과 명성 위상 제고” ‘100만’ 재광호남향우들 뭉쳤다

(사)재광호남향우총연합회(총재 김순곤)는 호남인의 타고난 기백과 명성의 위상제고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 정신으로 23일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의 22개 시·군의 100만 향우들을 결성하여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향순(사)전국 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 이사장/대표 총재, 강기정 광주시장, 김귀순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병내 남구청장, 김성 장흥군수와 문금주(고흥 보성 장흥 강진), 박군택(광주 광산갑), 정준호(북구 갑)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등 정·재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편 김순곤 총재는 연합회 공동대표에 박창순(보성) 차용훈(강진) 오형근(영암) 완도(김용태) 등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편 식전 행사로 빛고을실버대학 특별공연단 엘림앙상블 공연과 민중가수 장윤환 가수의 공연에 이어 민요 가수 이해자 가수는 (배 띄워라 신고산타령 뱃노래) 등의 공연을 펼쳐 출범식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렸다.

임향순 중앙회 총재는 1955년 3월 향우회가 발족해 69년의 세월이



(사)재광호남향우총연합회 박창순(보성·가운데) 공동대표가 임명장을 받은 후 보성향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전남 22개 시·군 통합 (사)재광호남향우총련 출범

흐른 이즈음 서울에 300만명 경기도에 400만명 인천에 90만명 부산에 80만명 등 전국 각지에 1,000만

여 명의 출향민이 살고 있는데, 서로 결속해서 화합하고 단결해 호남인들의 긍지와 명예를 더욱 높여 가자고 했다.

김순곤 총재는 “긴 역사 속에 향우회를 새로 단장해 광주·전남의 22개 시·군 100만 향우를 결성하

여 행안부 32-6650 최초 제1호로 (사)재광호남향우총연합회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며 “호남인의 타고난 기백과 명성으로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 정신을 이어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박해성기자

광주교육청 ‘4월 이음데이’ ‘꿈 담아 봄’ 음악회 성황

광주시교육청이 24일 ‘4월 정기 이음데이’ 행사로 야외 음악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종료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음데이’는 시교육청이 본청 야외 소통무대인 이음광장에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날을 지칭한다. 이번 달 ‘이음데이’는 ‘모두의 꿈을 담아 봄(春)’을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50여 명이 무대에 올랐다.

공연은 광주에육원 소속 ‘꿈을 품은 메리리 중창단’이 부른 ‘소중한 만남’으로 문을 열었다. 그후 이정선 교육감이 창작 100주년을 맞이한 동요 ‘반달’을 소개하고 학생과 관객이 함께 합창하면서 점차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다.

이어 봉주초 학생들의 ‘고향의 봄’ 가이금 연주, K-pop댄스, 트로트 열창에 이어, 동부교육지원청 주무관 듀엣의 ‘마리아’, 시교육청 직장동호회 ‘행복나눔’의 통기타 가요 메들리 등이 무대를 채웠다. 또 공연 막바지에는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직원으로 구성된 ‘부채테라’의 ‘지금 이 순간’, ‘축배의 노래’ 합창으로 여러 관객을 사로잡았다. /박해성기자

신문 읽는 오늘 더 지혜로운 내일

때론 매섭게 - 때론 부드럽게 -
신문은 빠르고 빠른 보도로
당신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오늘 만난 당신의 신문이
내일을 앞서가는 힘이 됩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